

도심 속의 생태공원

한라수목원은 제주도 자생 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학습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원되었다. 도심 가까이에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원이다.



수목원길 | 제주시 노형동 103-1 ~ 제주시 연동 992(약 0.7km)

은수길 | 제주시 연동 1365-1 ~ 제주시 연동 941(약 2.7km)

과원로 | 제주시 노형동 754-4 ~ 제주시 연동 1662-6(약 1.4km)

진군길 | 제주시 노형동 730 ~ 제주시 노형동 762-8(약 0.6km)

연화로 | 제주시 연동 1370 ~ 제주시 연동 1531(약 0.6km)

국기로 | 제주시 연동 1372 ~ 제주시 연동 1524-8(약 0.5km)

주수길 | 제주시 연동 417 ~ 제주시 연동 495-6(약 0.5km)

삼동길 | 제주시 연동 1529-7 ~ 제주시 연동 528-4(약 0.6km)

한라대학로 | 제주시 노형동 2345 ~ 제주시 노형동 753-1(약 1.2km)

고사마루길 | 제주시 노형동 2319-1 ~ 제주시 노형동 1757-1(약 1.7km)

방일2길 | 제주시 노형동 3163-1 ~ 제주시 노형동 1949-3(약 1km)

수목원길 | 한라수목원



한라수목원

1100로에서 갈라지는 **수목원길**은 한라수목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신시가지 남쪽 광이오름에 조성된 한라수목원은 도심에 자리잡은 생태공원이다. 1000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은 인근의 주택가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한라수목원에는 난대림에서 한대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제주의 자생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교목원, 관목원, 화목원, 죽림원 등 10개의 테마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화목원에는 약 50여 종의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데 제주도 상징꽃인 참꽃나무

도 볼 수 있다. 희귀특산수종원에는 제주도에서만 자라거나 멸종 위기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산책로 양쪽으로는 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이 중에는 말오줌때, 무환자나무, 가래나무같이 흥미로운 이름들을 갖고 있는 나무들도 있고, 제주상징목인 녹나무도 만날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삼림욕을 즐기며 오름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신제주의 신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 다양한 식물상을 보여주는 한라수목원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다양한 수목과 오름이 어우러진 한라수목원은 도심 속의 갑갑함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생태공원이다.

은수길 / 과원로 / 진군길 | 상여오름과 과원터

은수길은 이 지역의 옛 지명인 은수왓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길은 신시가지의 **과원로**와 **애조로**를 연결하고 있다. 은수길을 따라 가다보면 한라수목원 인근에 있는 상여오름을 만날 수 있다. 상여오름은 풍수지리로 봤을 때 마치 상여와 같은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여오름이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염통피라 하는데 광이오름 옆에 붙어있는 모습이 간 옆에 붙어있는 염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은수길에서 북쪽으로 내려와 신시가지에 이르러 만나는 과원로는 옛날 과원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주변에는 과원동산, 과원구릉, 과원내밭 등 과원과

관련된 여러 지명이 전해온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을 제주도 곳곳에 설치해 감귤과 같은 진상품을 재배했다. 과원이 설치되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과원을 지키는 병사들을 두어야 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 군사들이 진을 쳤던 진군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과원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진군길**은 군사들이 머물렀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군사들이 주둔할 정도였으면, 이곳에서는 꽤나 큰 마을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옛 흔적들을 뒤로하고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화로 / 국기로 | 연꽃 자생지와 국기동

연화로는 과원로에서 연북로로 이어지며 신제주 신시가지의 아파트를 지나는 길이다. 연화로의 이름은 연꽃 자생지를 의미한다고 한다. 광이오름과 맞닿아 있는 남짓은오름의 북쪽은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길 주위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연화로와 나란히 신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길은 **국기로**이다. **국기로**는 바둑판처럼 평평한 지대에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는 옛 지명을 반영한 길이다. 이곳은 4·3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마을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동산동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동산동이라고 하다 국기동(局棋洞)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주수길 / 삼동길 | 주수동과 삼동이

주수길은 마을 동쪽은 구슬같은 민오름이, 남쪽에는 수림이 울창한 남짓은오름이 있다는 것에서 구슬 주(珠), 나무 수(樹)자를 딴 주수동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주수동은 주슴밭이라고 불리던 곳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지금의 해군 아파트 동쪽 일대에 있던 마을이었지만 4·3사건으로 마을이 사라진 후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민오름

삼동길은 남짓은오름 북쪽에 있었던 삼동마을을 반영한 이름이다. 마을 이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과거 이 마을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우물가의 딸기를 따 먹으려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세 어린이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로 삼동이(三童伊)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세 어린이가 물에 빠진 어른을 구한 것을 기리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마을 역시 4·3사건 때 마을이 불타고 재건되지 않았다. 이 주변에는 해군아파트와 빌라들이 들어서 있다.

한라대학로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대학로는 한라대학교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길이다. 한라대학교는 제주에 있는 4개의 대학 중 하나이다. 1969년 공립간호학교로 시작된 한라대학교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사립학교로 바뀌었지만, 꾸준히 보건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했다. 이후 21세기 들어 여러 신설학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고사마루길 / 방일2길 | 방일봉

한라대학교 서쪽으로 이어지는 **고사마루길**은 한라대학교 남서쪽의 고사마루라 불리는 언덕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고사마루를 수풀이 있는 동산이라 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냈던 마루라고도 한다. 이 길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은 **방일2길**이다. **방일2길**은 방일봉 인근에 방일이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방일봉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해맛이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맛이동산이라고 불렀고, 한자로 표기되면서 방일봉(方日峯)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